

꿈트리 KKUMTLING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김영환 교수



김영환 교수,
'학교가 싫던 학생'
국제 교육을 이끌다



KKUMTLING



Q1.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교육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교육학과 80학번으로, 1987년에 유학을 떠나 석·박사 학위를 받고 1995년부터 부산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APEC과 OECD 관련 자문과 의장직을 오래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국제 교육협력 분야에 깊이 관여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교육공학보다 이 분야를 더 많이 가르치고 있으며, 내년 2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학을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라는 체제 자체를 싫어했고, 고3 때는 검정고시를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교육학과에 온 것은 재수하고 나서 군대에 끌려갈까 봐 두려워서 등록금이 저렴한 사범대를 택했던 것이죠. 이처럼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교육의 무한한 가능성과 막중한 책임감을 깨닫게 되면서 평생의 업이 되었습니다.”

Q2. 교수님께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육학자나 연구자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학부 시절에는 이제는 다 고인이 되신 변영계 교수님과 최중옥 교수님께 인간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변 교수님과는 술잔을 기울이며 학문과 인생을 논했고, 최 교수님께서는 제가 유학 시절 어려움을 겪을 때 보내주신 따뜻한 편지로 큰 힘을 주셨습니다.”

“학계를 떠나 세상을 넓게 보게 된 지금은 세 명의 사상가에게 깊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 없는 사회』의 이반 일리치(Ivan Illich), 『위험 사회』의 울리히 벡(Ulrich Beck), 그리고 『조화로운 삶』의 스코트 니어링(Scott Nearing)입니다. 이들의 통찰은 제 삶과 학문의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년 후에는 이 사상들을 더 깊이 탐구해 전문 저술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인문학으로 보는 교육 이야기'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를 대중과 나누고 싶습니다.”

Q3. 교수님께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연구 주제나 프로젝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연 '연구 동향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 주제로 쓴 논문만 55편에 달합니다. 이 연구에 매진한 이유는 한국 교육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교육학은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수동성과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려는 수구성이 너무 강합니다. 혁신을 외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임시방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년 가뭄에 비 안 온 날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는 매일 왔지만 가뭄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땅을 흠뻑 적실 만큼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육 개혁이 이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고교학점제, AI 교과서, 자유학기제 등 수많은 정책이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구 동향 분석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논의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맴도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하고, 더 큰 담론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할 수 있었기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4. 교수님께서 국제 교육협력 분야에서 여러 정책을 맡아오셨는데, 이 직책을 맡게 되신 계기와 가장 기억나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2001년 OECD 교육부 장관 회의의 영문 기초연설 작성자로 공개경쟁에서 선발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교육부로부터 1년 반 동안 성과가 없던 APEC 관련 사업의 '소방수' 역할을 부탁받았습니다. 두 달 안에 보고서를 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녔고, 결국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업을 APEC 내 우수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과를 발판으로 여러 국가의 추천을 받아 컨소시엄 의장, 교육분과 위원장, 워킹그룹 의장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회의에 임하는 저의 마음가짐 그 자체였습니다. 국제회의 단상에 앉을 때마다 항상 '나는 비겁한 국가대표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특히 베트남, 태국, 필리핀 같은 약소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는지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었고, 그 신뢰가 의장으로서의 제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Q5. 국제 교육협력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으신 깨달음이 무엇이었던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국제 협력의 장은 치열한 외교전의 축소판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끊임없이 공부해야 했습니다. 출장길에 오를 때면 항상 책을 20~30권씩 챙겨가 비행기 안에서 읽었고, 회의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보고서를 살살이 훑었습니다. 교육뿐 아니라 외교, 노동, 복지까지 넘나들며 시야를 넓혔기에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회의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힘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 작은 나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을 옹호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외교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물리적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Q6. 정년 퇴임 이후 계획하고 계신 앞으로의 일정이나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퇴임 후에는 더욱 자유롭게 학문적 열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우선,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한국 교육을 총정리하는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 문제에 관한 책도 구상 중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에듀테인먼트(Eduainment)'라는 이름으로 교육과 인문학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저만의 고유한 이론이기도 한 이 분야를 통해 대중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죽는 날 전날까지 공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Q7. 교수님께서 연구와 강의 외에 즐기시는 취미나 최근 관심분야는 무엇인가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활동들을 즐깁니다. 매일 아침 호수 주변을 달리고, 주말에는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광식이'라고 이름 붙여준 캐러밴을 끌고 전국을 여행하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모습이 예뻐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죠. 여행을 하며 그동안 국제 활동을 통해 사귀어 온 세계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또한 제 삶의 큰 활력소입니다. 저는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가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Q8. 마지막으로,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꾸만 '어느 게 좋아요?'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답을 찾는 질문이지만, 세상은 이제 정답이 없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기보다, 무언가를 직접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며 배우십시오. 실패해도 좋습니다. '이걸 해보다가 망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 분야를 가리지 말고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둘째, AI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주인이 되십시오. 셋째, 실패를 두려워 말고 끊임없이 시도하십시오. 고민 없이 정답만 찾는 사람은 결국 AI의 노예, 즉 '잉여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적 사고에서 벗어나, 정답이 아닌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용기 있는 교육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효율성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직접 발버둥 치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